2028학년도 대입 개편에 따른 진학 전략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은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전환, 성취도(A~E) 병기, 통합형 수능 도입,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내신 1등급 비율이 상위 4%에서 10%로 확대되면서 일반고 1등급의 정량적 변별력 약화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특목·자사고에서 하위 등급으로 밀려날 위험과 일반고에서 내신을 따더라도 학생부 내용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딜레마가 공존한다.

그러나 대학은 수치적 착시에 의존하지 않고,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할점수, 지필/수행 비율, 수행평가 영역명 등 3대 신규 제공 정보를 종합 분석하여 학생의 실제 학업 역량을 입체적으로 검증한다. 따라서 막연한 공포에서 벗어나 정성평가의 정교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내신 5등급제하에서는 동일 1등급 내에서도 원점수 고득점 여부가 중요해진다. 이에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강화하여 학업 역량 미달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 특히 수업 시간 내 완결형으로 개편된 수행평가의 '영역명'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신뢰도를 판가름하는 핵심 단서가 된다.

대학 입학사정관은 단순 방법 중심(발표, 포트폴리오)보다 교과 성취기준에 입각한 '주제×방법' 결합형 영역명(예: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문학 비평문 쓰기)을 강력히 선호한다. 세특 기록이 화려해도 수행평가 영역명이 '어휘 테스트' 수준이라면 정성평가에서 하향 평가받는다. 수행평가 영역명은 세특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투명한 창 역할을 수행한다.

대학은 학교의 교육과정, 시험 난이도, 주어진 환경 내 학생의 자발적 노력을 종합 평가하는 '맥락적 정성평가'를 시행한다. 특목·자사고는 심화 교육과정과 생기부 관리 노하우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강세를 보이지만, 내신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일반고는 1등급 확보가 용이하여 수능 최저 충족 시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지며, 수행평가와 세특 관리가 내실화될 경우 종합전형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한다.

정시전형에서는 수능 중심 학습 분위기가 조성된 특목·자사고 및 외고·국제고가 유리하지만, 일반고 수험생 역시 수능 최저 준비와 결합하면 학종과 교과전형을 동시 공략하는 최적의 대입 전략을 완성할 수 있다.

성공적인 고교 선택을 위해서는 학생의 성향(자기주도성, 경쟁 탄력성, 학업 집중도)과 고교 환경 지표(수행평가 설계 방식, 200~300명 이상의 모집단 규모, 교육과정 유연성, 학업 중단율)를 과학적으로 매칭해야 한다.

자기주도성과 경쟁 탄력성, 학업 집중도가 모두 뛰어난 학생은 특목·자사고 진학이 유리하다. 반면 학업 역량과 탐구 심화 흥미는 높으나 경쟁 스트레스에 약한 학생은 수행평가와 교육과정이 내실화된 일반고에서 안정적 1등급을 확보하며 학종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도성과 경쟁 탄력성이 보통 이하인 학생은 대규모 일반고에서 내신 상위권과 수능을 병행하는 전략이 권장된다.

수험생은 수업 내 수행평가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고차원적 사고력을 세특에 담아내고,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 고교 입학 초기부터 수능 핵심 영역 학습을 병행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수행평가 영역명을 '주제×방법' 결합형으로 구체화·범주화하여 평가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학부모와 수험생은 진단검사 등을 통해 학생의 성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고교 환경 지표를 검증함으로써 최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JSB진로진학연구소장

설비비 넘으니 전기요금… 두 번 막힌 전기화



기자 수첩

원 관 희
〈산업부〉

가스보일러를 전기 히트펌프로 교체하려는 기업은 두 가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설비 교체 비용과 함께 교체 이후 들어가는 전기요금 비용이다. 탄소를 줄이겠다는 목표에 동의하더라도 두가지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투자 결정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녹색전환(K-GX)의 핵심 과제로 산업부문의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의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307개사를 조사한 결과 전기화를 추진 중인 기업은 31.9%에 그쳤다. 오히려 추진 계획이 없다는 응답이 62.9%나 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기업의 전환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이미 전기화를 추진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이 꼽은 부담 요인으로 초기 투자비가 84.0%, 운영비가 56.2%였다. 설비를 바꾸는 비용뿐 아니라 바꾼 뒤의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다.

전기화는 기업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기존의 설비와 공정을 모두 바꾸는 일이다. 그렇다 보니 초기 비용을 지원받더라도 이후 운영비가 기존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늘어난다면 전기화로의 전환을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주요 선진 국가들은 이런 운영상 문제를 지원제도에 반영하고 있다. 독일은 녹색투자를 조건으로 전기요금 차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에너지효율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재생에너지 부과금을 감면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전기화에 나선 기업의 전력비용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직 없다 보니 기업들은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에 눈을 돌리고 있다.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이 최대 10%가량 낮아지면 전기화 이후 늘어날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요금을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설비 교체비와 운영비를 함께 감당하기 어렵다. 기업들이 요금제에 거는 관심을 실제 투자로 끌어내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설비 교체비를 얼마나 지원할지와 함께 전환 이후 전력비용을 어떻게 낮출지, 기업이 장기 비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 등을 제시해야 한다. '전기국가'로의 전환은 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전기를 쓰라고 권하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이 설비를 바꾸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뒤따라줘야 한다.

/wkh@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13일 (음 10월 5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새로운 일보다 현재의 일을 다시 돌아보세요. **60년생**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72년생** 건강에 주의 해야 합니다. **84년생** 실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9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리면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61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73년생** 남녀의 만남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85년생** 계획은 성공하게 됩니다.

50년생 한 발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입니다. **62년생**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74년생**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마세요. **86년생** 직장문제도 점차 잘 해결 될 것 같습니다.

51년생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집니다. **63년생**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75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합니다. **87년생** 현재의 괴로움을 인정하세요.

52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64년생**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세요. **76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합니다. **88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됩니다.

53년생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65년생**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77년생** 주변사람들과 협동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89년생**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마세요.

54년생 당신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66년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세요. **78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습니다. **9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5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67년생** 주변인들과 의견이 상반되어 위기가 옵니다. **79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입니다. **91년생**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세요.

56년생 모든 일에 운이 따릅니다. **68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합니다. **80년생** 가까운 곳에 귀인이 있습니다. **92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집니다.

57년생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합니다. **6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81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세요. **93년생** 큰 금전의 계약은 다음으로 미루세요.

58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마세요. **70년생**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 입니다. **82년생** 금전운이 좋아 기쁜 마음입니다. **94년생**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59년생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합니다. **71년생** 조금만 참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83년생** 감정에 솔직하세요. **95년생**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김상회의 四季

이름과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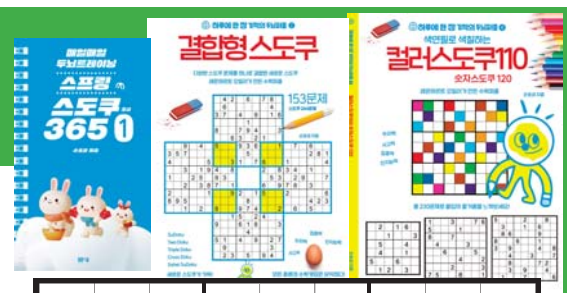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허랑이는 죽엇 가죽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름은 곧 성명(姓名)을 말함이다. 내가 속한 조상들의 뿌리를 밝히면서 자신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곧 이름인 것이다. 모든 이들은 태어나면 이름부터 짓는다. 성과 이름이 있어서 통틀어 성명이라 부르는 것이지만 평생 이름은 나라는 존재와 하나가 된다. 우리 민족은 특히나 이름에 거는 의미와 기대가 대단했다.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고 사후에 까지도 항시 나를 대변해 주는 상징임은 물론 지속하는 정체성 그 자체인 것이다. 그래서 성명은 후천적인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고 보았기에 성명학, 성명수리학 등을 적용하여 좋은 이름을 짓는데 진심이었다. 서양 역시 그러한 인식이 있었던 것 같다.

고대 로마에는 "이름이 곧 운명(Nomen est omen)"이라는 격언이 있다 하니 말이다. 고대 중동에서는 이름 자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동양에서는 제후나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피휘 문화가 당연시되었으며, 일반 양반도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저어하여 아호 또는 호를 지어서 칭명했다. 성명학은 이름의 획수와 오행을 분석해 운명적 기운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소리 발음의 오행과 항렬까지 맞추려면 의외로 좋은 이름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또한, 불용문자는 큰 의미가 없음이나 불용한자(不用漢字)를 불리하게 인식하기에 이름 짓기에 진땀을 흘린다. 이러한 성명학적 관점은 단순한 통념이 아니라는 것이 최근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름이 사회적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발음하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즉 이름을 지을 때는 성씨와의 조화, 발음의 편의성, 한자의 의미, 사주와의 조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5		1			8	
9	8						7	
		2				5		
			7		3	1		6
			4		1			
2		7	9		5			
		4				7		
	7						6	5
	5			7		8		9

9	8				5			
6		2				7		
		7	2	1				
7	2		1		9			
		5		2		8		
			5		8		7	4
				5	7	4		
		9				3		6
			3				9	7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4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3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